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직속 함께하는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최혜영
담당자	이주영 / 010-9074-2934		
사진	X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이재명 후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청에 응답해 현안 청취

장애인 당사자 직접 만나 장애인 정책 방향 경청

- 이재명 후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정리할 때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의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 장애계 인사들을 만나 장애인 정책 및 관련 법안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계의 주요 현안을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이 논의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법안 소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국회 일정과 부처 의견 등을 포함한 그간의 경과와 민주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간사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이 참석하여 “연내 교통약자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박찬대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석했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철폐를 위한 권리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제정 사항’ 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으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이견이 없다” 면서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고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정리할 때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이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최혜영 의원(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모두 함께했기 때문” 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끝)